

## 산 · 학 · 연 논문

## 국내 수제맥주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권 경 민

농업법인주식회사 공주브루어리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Craft Beer Industry in Korea

Kyungmin Kwon

Princess Brewery, Gongju, Chungbuk 32531, Korea

## 한국 맥주와 한국 수제맥주의 역사

국내에 최초로 맥주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그 후 1900년대부터 일본 맥주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벌였고, 국내 거주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수송비 절감을 위해 일본은 마침내 193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맥주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조선맥주를, 기린맥주주식회사가 소화기린맥주를 설립하였다. 이후 해방과 더불어 1945년 9월 적산 관리 공장으로서 지정되어 미국 군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1948년부터 정부에서 관리하였으며, 1952년에 이르러 민간인에 불하되었다(두산그룹, 1996). 조선맥주와 소화기린맥주는 하이트맥주와 OB맥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서로 경쟁하며 한국 맥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1960년대에 생산된 크라운 맥주와 오비 맥주는 대부분 병으로 생산되었고 캔도 조금씩 생산을 시작하였다(그림 1).

1970년대 중반에 한국과 독일이 합작하여 한독맥주를 설립하고 이젠백이라는 상표를 출시하여 3개월 만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지만, 두 회사의 저지 공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조선맥주에 인수되었다. 또 1994년에는 진로쿠어스맥주가 카스를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초반에 약진을 펼쳤지만, 부실경영으로 1998년 OB맥

주에 인수되며 한독맥주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부터 다양한 수입맥주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며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2014년 드디어 양분되었던 국내 대형 맥주회사의 구도에 롯데주류가 클라우드를 출시하며 대기업 3사의 구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클라우드의 점유율은 7%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맥주회사 두 곳이 비슷한 맛의 라거 맥주만을 한창 만들어 내던 2002년, 2002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주류생산규제가 완화되며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 독일, 캐나다 등 유럽과 미주에서 수입한 장비들로 설비를 갖춘 소규모 ‘하우스맥주’ 집들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거맥주가 아닌 에일맥주의 맛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유행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양조 전문 인력으로 인한 맥주 품질의 문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희소성 감소, 양조장 밖으로의 외부반출 금지와 같은 법적인 한계로 불과 3년도 안 되어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었다(원, 1997).

침체기를 견딘 수제맥주 시장은 2010년 이태원 경리단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제맥주 펍들이 입소문이 나며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2002년 이후 해외에서 양조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많은 전문 인력들의 국내 유입과 그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한 국내 양조 기술자들의 양조 실력까지 뒷받침이 되어 점점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소규모 맥주회사의 외부유통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 2019년 수제맥주산업 상황

2019년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와 수입맥주의 공격 그리고 불합리한 주세 제도 속에서 한국의 수제맥주 제조사들은 또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02년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몇 번의 법 개정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지



그림 1. 1960년대 생산된 병맥주. 출처: 하이트, OB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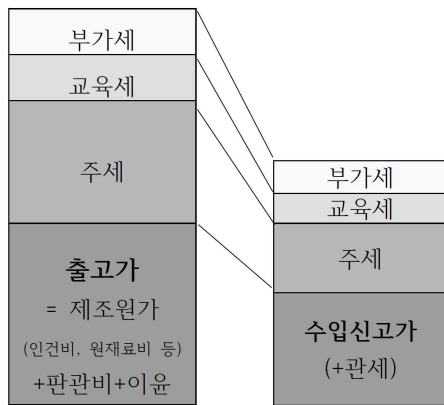


그림 2. 국산-수입맥주 주세 비교. 출처: 관세청(2019).

표 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구분	국내맥주	수입맥주	수제맥주
2016	88.60%	11.10%	0.30%
2017	82.80%	16.70%	0.50%
2018	79.05%	20.20%	0.75%

출처: 국세청(2019).

금의 종가세 제도에서는 현 주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 국내 수제맥주 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에는 제조원가에 이윤,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출고가로 주세(출고가의 72%)가 결정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업자의 수입신고가로 주세(수입신고가의 72%)가 결정된다(그림 2). 이것은 수입업자가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7년 말 이후 FTA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관세도 폐지되면서 수입맥주에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표 1).

이렇게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국내 수제맥주 업체에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2002년 이후부터 수제맥주 업체는 꾸준히 관세 당국에 요구해왔다. 그리하여 드디어 정부는 2020년 종량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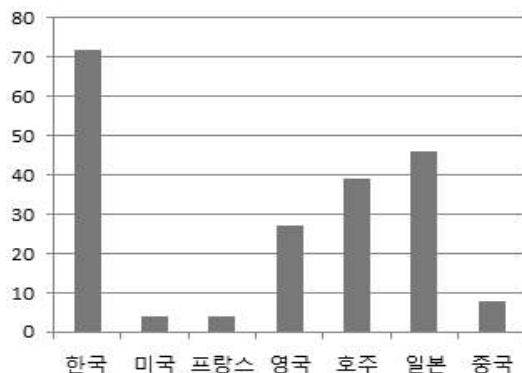


그림 3. OECD 주요 국가별 주세비교.  
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2018).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출고가가 아닌 양이 되어 그 양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맥주 1리터당 수입맥주, 대기업 맥주, 수제맥주 모두 똑같이 830.39원의 세금을 징수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지만,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세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에 속해있다(그림 3). 하지만 앞으로 차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맥주 제조사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노력과 방향

이런 상황에서 맥주 제조사들은 2002년 후에 있었던 침체기 때를 거울삼아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맥주 제조사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주세 절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원재료를 이용한 맥주개발, 지역과 함께하는 맥주축제 등으로 지역 농민들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군산에서는 보리를 가공하여 맥아를 만드는 설비를 도입하여 국산보리를 활용한 맥주를 만들려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문경 브루어리에서는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를 사용해 양조한 오미자맥주를 출시하고 있고, 강릉의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는 강릉 쌀을 넣어 양조한 쌀맥주를 생산하고 있다(그림 4). 충북 제천에 위치한 뱅크크릭 브루잉은 직접 재배한 홉을 사용해 양조하여 맥주를 생산한다(그림 4). 홉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면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맥주를 마시며 홉을 따는 하나의 작은 축제로 자리 잡아 매년 마을 주민이 다 같이 모여 홉을 수확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공주에 있는 금강브루어리에서는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을 이용해 밤과 잘 어울리는 맥주 종류인 브라운에일에 바닐라빈과 닛맥 등을 첨가해 양조한 밤맥주 “밤마실”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 유통을 하고 있다(그



그림 4. 국내산 농산품을 이용해 양조한 수제맥주들.  
출처: 각 수제맥주회사 홈페이지.



그림 5. 공주 알밤을 넣은 바이젠하우스의 밤마실.  
출처: 바이젠하우스 홈페이지.

그림 5). 가을만 되면 판매가 급등하며 가을 효자상품으로 등극했다.

바이젠하우스는 매년 6월 초에 수제맥주축제 중 전국 최대 규모의 대전 수제맥주&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벌써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대전 수제맥주&뮤직페스티벌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전국의 대표 수제맥주를 마시고 즐기며 수제맥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수제맥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6).

이렇듯 전국의 수제맥주 양조장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양조에 적용 시켜 각 양조장의 개성이 살아있는 맥주를 양조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림 6. 대전 수제맥주&뮤직페스티벌.  
출처: 바이젠하우스 홈페이지.

2002년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수제맥주업계는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냈다. 여기에 과감한 법적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따라 준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제맥주회사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두산그룹. 배오개에서 세계로: 두산 100년 이야기. 서울, 한국. 1996. p 1-2.
- 원용희. 상큼한 맥주의 세계. 보경문화사, 서울, 한국. 1997. p 2-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2019년 6월 3일. 서울, 한국.